

초·중·고등학생과 교사의 음료 소비문화

The Beverage Consumption Patterns among Elementary·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김향숙·김영남*·신말식**·이경애***·백수진·조숙자****
충북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전남대학교**·순천대학교***·서원대학교****

Kim, Hyang Sook · Kim, Young Nam* · Sin, Mal Sik**
Lee, Kyoung Ae*** · Baik, Su Jin · Jo, Sook Ja****
Chungbuk National Univ. ·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 Soonchunhyang Univ.*** · Seowon Univ.****

Abstract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beverage consumption pattern.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preference, quantity of daily consumption, selection, consumption of traditional beverages and so on, was distribut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Home Economics teachers.

Compared with teachers, students prefer soft drinks to coffee and tea. The factor considered as important appeared taste when they choose beverages. The reasons why they drink beverage were its being tasty and their heavy thirst.

Among traditional beverages, sikhae was consumed most frequently at home. More than 5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drinking whachae, soochungkwa, citron tea and ginger tea.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젊은층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생활 각 곳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문화보다는 외래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 생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가정 중심의 생활 문화에서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므로써 의, 식, 주 생활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식생활 환경도 급변하여 가족끼리 둘러 앉아 식사하던 종전의 형태에서 가족 각 구성원의 사회에서 역할과 필요에 의해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외식의 빈도가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와 식품공업의 발달로 식생활의 간편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수입 개방화는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권태완과 강세기, 1993). 특히 외식산업의 발전은 패스트 푸드점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식생활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음료 소비의 증가는 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중심

의 소비형태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음료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고, 이와함께 우리 전통적인 음청류를 이용한 음료와 기능성 음료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패스트 푸드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된 외국 상표 음료의 경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조인성, 1997) 우리 전통 음료로 개발된 일부 음료는 원재료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입재료로 대체되고 있어 음료시장에 대한 우리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우리 음식 중의 음청류는 일상식, 절식, 제례, 대소연회식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식생활이 체계화되어 주식, 부식, 후식의 형태로 나누어짐에 따라 후식류로 발달하게 되었다(이철호와 김선영, 1991). 우리의 전통 음청류는 차를 비롯하여 식혜나 수정과 등 150여 가지가 기록으로 내려오지만(이효지, 1994), 제조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소비가 점차 위축되고 있었으나 최근 전통음료의 대량생산을 통한 상품화로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이런 전통 음료는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 음료와 결들여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전통 식품의 개발이 뒤따라지 못해 소비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식품비의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전체 식품비 중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들도 음료 형태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주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층에 따른 음료의 선호도나 마시는 양 등을 비교하고 음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표시사항 정도나 전통음료 소비 경험 등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음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편의 표집한 다음 초등학교 5학년생(남 49명, 녀 50명), 중학교 2학년생(남 50명, 녀 49명), 고등학교 2학년생(남 44명, 녀 64명) 총 306명을 추출하였고, 청주시 소재 C대학의 연수에 참여한 교사 76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7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재학 중인 초, 중, 고등학교와 교사가 연수 중인 대학을 직접 방문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내용을 설명한 후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82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였던 33부를 제외하고 총 34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비만도,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 및 마시는 양, 음료의 선택 기준, 전통음료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만도는 체중과 신장을 조사하여 BMI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싫어한다: 1점, 싫어한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아한다: 4점, 매우 좋아한다: 5점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고 마시는 양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1점, 2-3일에 1캔(컵): 2점, 매일 1-2캔(컵): 3점, 매일 3-4캔(컵): 4점, 그리고 매일 5캔(컵) 이상: 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3) 조사자료의 처리 방법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장지인 등, 1993),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비만도 분포, 음료를 마시는 시간 및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백분율과 빈도를 비교하였다.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와 마시는 양은 항목별 평균치를 제시하였으며, t-test를 이용하여 성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349명의 분포는 초등학교생이 92명(26.4%), 중학생이 88명(25.2%), 고등학생이 101명(28.9%), 교사가 68명 (19.5%)이었다.

<표 1> 초·중·고등학생의 일반사항

N(%)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성별				
남	47 (51.1)	48 (54.5)	38 (37.6)	133 (47.3)
녀	45 (48.9)	40 (45.5)	63 (62.4)	148 (52.7)
합계	92 (100.0)	88 (100.0)	101 (100.0)	281 (100.0)
용돈 받는 주기				
수시로	35 (38.0)	44 (50.0)	53 (52.5)	132 (47.0)
1주일에 1회	25 (27.2)	8 (9.1)	9 (8.9)	42 (14.9)
2주일에 2회	2 (2.2)	3 (3.4)	3 (3.0)	8 (2.8)
1달에 1회	26 (28.3)	31 (35.2)	36 (35.6)	93 (33.1)
받지 않는다.	4 (4.4)	2 (2.8)	0 (0.0)	6 (2.1)
합계	92 (100.0)	88 (100.0)	101 (100.0)	281 (100.0)
용돈액수				
만원미만	43 (47.8)	8 (9.9)	2 (2.0)	53 (19.5)
만원-2만원	37 (41.1)	26 (32.1)	7 (6.9)	70 (25.7)
2만원-3만원	5 (5.6)	33 (40.7)	28 (27.7)	66 (24.3)
3만원-4만원	3 (3.3)	10 (12.4)	38 (37.6)	51 (18.8)
4만원 이상	2 (2.2)	4 (4.9)	26 (25.7)	32 (11.8)
합계	90 (100.0)	81 (100.0)	101 (100.0)	272 (100.0)
간식비의 비율				
용돈의 1/4미만	46 (50.6)	38 (43.2)	25 (24.8)	109 (38.9)
용돈의 1/4-1/2	31 (34.1)	33 (37.5)	47 (46.5)	111 (39.9)
용돈의 1/2-1/4	8 (8.8)	9 (10.2)	21 (20.8)	38 (13.6)
용돈의 3/4이상	6 (6.6)	8 (9.1)	8 (7.9)	22 (7.9)
합계	91 (100.0)	88 (100.0)	101 (100.0)	280 (100.0)

초·중·고등학생의 일반특성은 <표 1>에 제시 하였다. 남·녀학생의 전체 성비는 1:1 수준으로, 초, 중학생은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교사는 모두 여성이었다.

용돈 받는 주기는 수시로가 가장 많아 절반가량 되었으며, 1달에 1회 용돈을 받는 학생이 다음으로 많아 1/2정도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용돈을 받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 27.2%나 되었다. 용돈의 액수에서 초등학생은 47.8%가 1만원 미만 이었고, 41.1%가 1-2만원이었던 반면, 중학생은 2-3만원이 가장 많아 40.7%를 차지하였고, 1-2만원을 받는 학생이 32.1%이었으며, 그리고 고등학생은 3-4만원 37.6%, 2-3만원, 27.7%, 4만원 이상 25.7%의 순이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의 액수도 증가하였다. 용돈 가운데 간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1/4-1/2과 1/4미만이 각각 39.6%, 38.9%로 나타났다. 초, 중학생은 1/4 미만에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은 1/4-1/2이 가장 많았다. 용돈 중 간식비의 비율은 용돈의 액수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이 증가

<표 2> 교사의 일반사항

N(%)		N(%)	
연령		가정수입	
20-29세	25 (36.8)	200만원미만	16 (23.9)
30-39세	42 (61.8)	200만원-250만원	19 (28.4)
40-49세	1 (1.5)	250만원-300만원	13 (19.4)
합계	68 (100.0)	300만원-350만원	12 (17.9)
현거주지		350만원이상	7 (10.5)
대도시	25 (36.8)	합계	67 (100.0)
중소도시	38 (55.9)	식품비 비율	
군지역이하	5 (7.4)	10%미만	8 (12.1)
합계	68 (100.0)	10-19%	25 (37.9)
가족사항		20-29%	28 (42.4)
결혼. 자녀있음	39 (57.4)	30-39%	2 (3.0)
결혼. 자녀없음	15 (22.0)	40-49%	3 (4.6)
미혼	14 (20.6)	50%이상	0 (0.0)
합계	68 (100.0)	합계	66 (100.0)

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의 일반특성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98.6%가 20-39세이었고, 92.7%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가정 총 수입은 200-250만원이 가장 많아 28.4%이었고, 52.3%가 250만원 미만이었으며, 수입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9%가 가장 많아 42.4%이었고, 10-19%가 다음으로 37.9%이었다.

를 보였다.

3).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와 마시는 양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 조사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콜라, 사이다., 우유, 유산균 음료, 과일주스, 과일 음료, 스포츠 음료, 전통 음료 및 기능성 음료에 대해서는 조사대

<표 3> 조사 대상자의 비만도

N(%)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계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BMI											
20미만	35 (77.8)	33 (82.5)	68 (80.0)	29 (61.8)	23 (57.5)	52 (60.0)	25 (65.8)	28 (45.9)	53 (53.5)	30 (47.8)	203 (60.1)
20-25미만	10 (22.2)	6 (15.0)	16 (18.8)	14 (29.8)	17 (42.5)	31 (35.6)	12 (31.6)	33 (54.1)	45 (45.5)	35 (52.2)	127 (37.6)
25-27미만	0 (0.0)	1 (2.5)	1 (1.2)	4 (8.5)	0 (0.0)	4 (4.6)	1 (2.6)	0 (0.0)	1 (1.0)	2 (3.0)	8 (2.4)
27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45(100.0)	40(100.0)	85(100.0)	47(100.0)	40(100.0)	87(100.0)	38(100.0)	61(100.0)	99(100.0)	67(100.0)	338(100.0)
자각도											
매우말랐다	2 (4.3)	1 (2.2)	3 (3.3)	1 (2.1)	0 (0.0)	1 (1.2)	2 (5.3)	0 (0.0)	2 (2.0)	1 (1.5)	7 (2.0)
말랐다	8 (17.0)	3 (6.7)	11 (12.0)	13 (27.7)	5 (12.5)	18 (20.7)	13 (34.2)	8 (12.7)	21 (20.8)	5 (7.4)	55 (15.8)
보통이다	30 (63.8)	31 (68.9)	61 (66.3)	21 (44.7)	21 (44.7)	42 (48.3)	21 (55.3)	30 (47.6)	51 (50.5)	45 (66.2)	199 (57.2)
똥똥하다	7 (14.9)	9 (20.0)	16 (17.4)	10 (21.3)	10 (21.3)	23 (26.4)	2 (5.3)	24 (38.1)	26 (25.7)	16 (23.5)	81 (23.0)
매우똥똥하다	0 (0.0)	1 (2.2)	1 (1.1)	2 (4.3)	2 (4.3)	3 (3.5)	0 (0.0)	1 (1.6)	1 (1.0)	1 (1.5)	6 (1.7)
합계	47(100.0)	45(100.0)	92(100.0)	47(100.0)	40(100.0)	87(100.0)	38(100.0)	63(100.0)	101(100.0)	68(100.0)	34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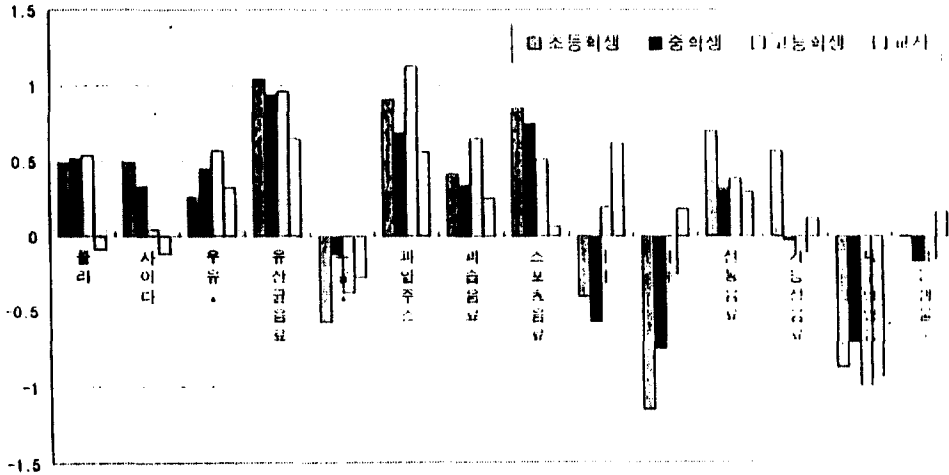
2) 조사 대상자의 비만도

조사 대상자의 비만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BMI는 설문지에 기입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고무석 등, 1997), 체격에 대한 자각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BMI 수치에 근거할 때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저체중(60.1%)과 정상체중(37.6%)이었고, BMI 27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인은 없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저체중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정상체중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체격에 대한 자각도는 조사 대상자의 57.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똥똥하다(23.0%), 말랐다(15.8%)의 순이었다. BMI 비만도로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정상체중 이하이었으나 본인 스스로는 똥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0%나 되어 정상체중보다는 다른 체중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초, 중, 고등학생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말랐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똥똥하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체격에 대한 자각도에서 남·녀간에 차이

상 거의 모두가 좋아한다에 해당하는 선호도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두유, 차류, 특수 영양음료, 그리고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싫어한다에 해당하는 선호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음료의 종류별로 선호도 점수의 순위를 살펴볼 때 초, 중학생과 교사는 유산균 음료를 가장 좋아하는 음료로 지적하였으며, 고등학생은 과일주스 1위, 유산균 음료를 2위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과일주스 2위, 스포츠 음료가 3위인 반면, 중학생은 스포츠 음료 2위, 과일주스 3위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는 커피가 2위, 과일주스가 3위로 나타나 초, 중,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커피의 선호도 점수가 특히 높았다. 즉 연령에 상관없이 유산균 음료와 과일주스를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포츠 음료와 사이다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선호도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차류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선호도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종 음료의 선호도

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4) 초등학생의 경우 우유, 두유, 먹는 샘물, 중학생의 경우 우유, 두유, 스포츠 음료에서 남학생의 선호도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p < 0.05$), 단 스포츠 음료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선호도 점수가 성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인 음료는 사이다, 유산균 음료, 과즙음료, 스포츠 음료,

커피, 전통음료, 그리고 먹는 샘물의 7가지나 되었으며, 유산균 음료와 커피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선호도 점수가 더 높았고, 나머지 5가지 음료는 남학생의 선호도 점수가 더 높았다. 먹는 샘물($p < 0.05$)을 제외하고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음료의 구매행동에 대해 조사한 보고(김신애와 조재순, 1995)에



□: 좋아한다, ■: 보통이다, ▨: 싫어한다.

그림 1. 음료별 선호도

<표 4> 음료별 선호도의 성별 비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 계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콜라	3.57	3.40	0.82	3.40	3.68	-1.23	3.62	3.48	0.63	3.53
사이다	3.67	3.31	1.95	3.19	3.50	-7.60	3.42	2.80	3.59**	3.32
우유	3.52	3.00	2.20*	3.68	3.18	2.19*	3.61	3.55	0.25	3.42
유산균 음료	4.00	4.09	-0.47	3.98	3.90	0.43	3.59	4.17	-3.14**	3.96
두유	2.78	2.02	2.69*	3.17	2.53	2.36*	2.74	2.55	0.82	2.63
과일 주스	3.96	3.87	0.45	3.71	3.68	0.15	4.08	4.16	-0.44	3.91
과즙 음료	3.52	3.29	0.90	3.38	3.30	0.29	3.97	3.44	2.32**	3.48
스포츠 음료	4.06	3.62	1.74	4.13	3.30	3.38**	3.95	3.23	3.71**	3.72
커피	2.64	2.53	0.36	1.10	2.21	1.68	2.86	3.39	-2.52**	2.46
차류	1.83	1.88	-0.16	2.36	2.10	0.89	2.44	2.90	-1.97	2.25
전통 음료	3.76	3.64	0.49	3.48	3.13	1.50	3.75	3.15	2.65**	3.49
기능성 음료	3.38	3.76	-1.35	2.74	3.23	-1.89	2.72	3.00	-1.28	3.14
특수 영양 음료	2.33	1.88	1.58	2.36	2.19	0.65	1.96	2.02	-0.26	2.12
먹는 샘물	3.25	2.68	2.06*	2.86	2.76	0.40	2.50	3.04	-2.39*	2.85

* : $p < 0.05$, ** : $p < 0.01$

의하면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성은 본인 구매 여부, 성별, 스포츠 음료에 대한 친밀도, 용돈,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학년은 내려갈수록 스포츠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각 음료별로 평소 마시는 양을 조사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우유와 유산균 음료의 경우 소비량이 가장 많아 2-3일에 1캔(컵) - 매일 1-2캔(컵)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음료가 2-3일에 1캔(컵) 미만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1981년 조사에서 나타난 1일 1인당 우유 소비량 1½컵,

커피 또는 차의 소비량 1½컵, 그리고 청량음료의 소비량 1¼컵(김영남, 1992)과 비교해 볼 때, 음료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음료를 마시는 양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콜라, 사이다, 유산균 음료, 과즙음료, 스포츠 음료 등 '청량음료'를 많이 마셨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커피, 차류같은 '다류'를 많이 마셨는데, 이는 선호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 음료 소비량 점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의 음료 소비량 점수는 모두 우유가 가장 높았고, 유산균 음료, 과일주스, 스포츠 음료의 순으로 높았다. 교사의 경우에는 커피가 1위이

<표 5> 음료별 소비량의 성별 비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남	여	t-value	
콜라	1.83	1.69	0.81	1.83	1.69	0.94	1.95	1.44	3.70**	1.72
사이다	1.82	1.58	1.56	1.67	1.68	-0.11	1.63	1.12	5.58**	1.56
우유	3.04	2.67	1.99*	3.05	2.34	3.68**	2.01	2.22	2.34*	2.65
유산균 음료	2.62	2.55	0.27	2.42	2.31	0.53	1.97	2.32	-2.06**	2.38
두유	1.44	1.21	1.40	1.55	1.20	2.34*	1.18	1.13	0.48	1.29
과일주스	2.30	2.22	0.34	2.00	1.70	1.63	2.22	1.92	1.87	2.06
과즙음료	1.83	1.80	0.14	1.85	1.61	1.44	1.84	1.48	2.42**	1.73
스포츠 음료	2.19	1.93	1.09	2.10	1.53	3.34*	1.97	1.31	4.55**	1.82
커피	1.40	1.18	1.43	1.43	1.35	0.51	1.43	2.32	-5.33**	1.56
차류	1.19	1.21	-0.17	1.22	1.37	-0.69	1.13	1.47	-2.27*	1.28
전통 음료	1.91	2.05	-0.55	1.73	1.38	1.88	1.41	1.25	1.42	1.62
기능성 음료	1.74	1.98	-1.14	1.28	1.44	-1.30	1.11	1.16	-0.58	1.45
특수영양 음료	1.39	1.08	1.83	1.19	1.19	-0.03	1.04	1.00	1.36	1.15
먹는 샘물	2.38	1.57	2.70**	1.64	1.54	0.53	1.50	1.60	-0.29	1.71

* : p<0.05, ** : p<0.01

<표 6> 총 음료 소비량의 성별 비교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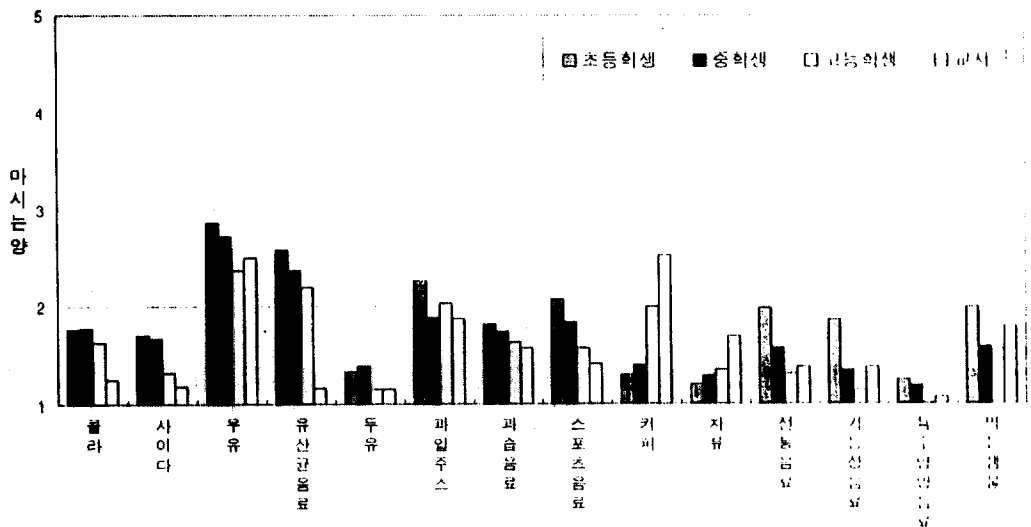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00ml이하	8 (17.8)	25 (55.6)	33 (36.7)	12 (25.0)	22 (55.0)	34 (38.6)	12 (31.6)	43 (68.3)	55 (54.5)
500-900ml	23 (51.1)	16 (35.6)	39 (43.3)	26 (54.2)	15 (37.5)	41 (46.6)	19 (50.0)	13 (20.6)	32 (31.7)
1000ml이상	14 (31.1)	4 (8.8)	18 (20)	10 (20.8)	3 (7.5)	13 (14.7)	7 (18.4)	7 (11.1)	14 (13.9)
합계	45 (100.0)	45 (100.0)	90 (100)	48 (100.0)	40 (100.0)	88 (100.0)	38 (100.0)	63 (100.0)	101 (100.0)
χ^2 -test (p value)	15.570 (0.001)			9.009 (0.011)			13.220 (0.001)		

었고 우유, 유산균 음료, 과일주스, 차류의 순으로 높았다. 음료 소비량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인 음료의 종류는 초등학생의 경우 우유($p<0.05$)와 먹는 샘물($p<0.01$), 중학생의 경우 우유($p<0.01$), 두유($p<0.05$), 그리고 스포츠 음료($p<0.05$)로 모두 남학생의 소비량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성별 소비량의 차이를 보인 음료의 종류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가장 많아 콜라, 사이다, 우유, 유산균 음료, 과즙음료, 스포츠 음료, 커피, 그리고 차류의 모두 8가지로 우유, 커피, 차류는 여학생의 소비량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고, 기타 5가지 음료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우유와 차류는 $p<0.05$ 수준에서, 나머지 6가지 음료는 $p<0.01$ 수준에서 성별로 소비량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인수와 안홍석(1987)의 연구에서 중학생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각 음료에 대한 소비량에 있어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군에서는 탄산음료와 주스의 소비량에서 남·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일부 음료로 한정되기는 하나 소비량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러나 역시 고등학생의 경우 보다 많은 종류의 음료에서 남·녀의 소비량에 차이가 나타났다.

4) 음료의 소비실태 및 선택

하루동안 마시는 음료의 총량을 조사한 결과(표 6), 400ml 이하가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0-900ml로 41.5%나 되어 조사 대상자 거의 대부분(86.2%)이 하루 1000ml 미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00-900ml이 가장 많았던 반면 고등학생과 교사는 400ml 이하가 가장 많았다. 2000ml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각각 3명, 1명 있었다. 1일 음료 소비량을 400ml 이하, 500-900ml, 그리고 1000ml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성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의 소비 시간대를 알아본 결과(표 7) 오후 3시-6시가 가장 많았고(27.0%), 그 다음이 12시-오후 3시(23.7%)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12시-오후 6시에 주로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특히 오후 3시-6시가 많았고, 중학생은 오후 3시-6시와 오후 6시-9시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과 교사는 12시-오후 3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은 방과 후에 그리고 고등학생과 교사는 점심 식사후에 주로 음료를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거의 마시지 않는다 2: 2-3일에 1캔(킬) 3: 매일 1-2캔(킬)
4: 매일 3-4캔(킬) 5: 매일 5캔(킬) 이상

그림 2. 음료별 마시는 양

<표 7> 음료를 마시는 시간

					N(%)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교사	계
오전9시이전	1 (1.1)	3 (3.5)	2 (2.0)	5 (7.4)	11 (3.3)
오전9시-12시	1 (1.1)	3 (3.5)	1 (1.0)	15 (22.1)	20 (6.0)
12시-오후3시	17 (18.9)	19 (21.8)	23 (23.2)	20 (29.4)	79 (23.7)
오후3시-6시	41 (45.6)	24 (27.6)	15 (15.2)	10 (14.7)	90 (27.0)
오후6시-9시	8 (8.9)	25 (28.7)	19 (19.2)	3 (4.4)	55 (16.5)
오후9시이후	3 (3.3)	3 (3.5)	8 (8.1)	1 (1.5)	15 (4.5)
수시로	19 (21.1)	10 (11.5)	31 (31.3)	14 (20.6)	74 (22.2)
합계	90 (100.0)	87 (100.0)	99 (100.0)	68 (100.0)	333 (100.0)

<표 8> 음료를 마시는 이유

					N(%)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교사	계
갈증이 나서	37(40.7)	41 (46.6)	47 (48.0)	39 (58.5)	164 (47.7)
습관적으로	5(5.5)	6(6.8)	10 (10.2)	13 (19.4)	34 (9.9)
건강에 좋아서	2(2.2)	1(1.1)	4 (4.1)	1 (16.4)	18 (5.2)
맛이 있어서	42 (46.2)	38 (43.2)	31 (31.6)	2 (3.0)	113 (32.9)
심심해서	5(5.5)	2(2.3)	4 (4.1)	(1.5)	12 (3.5)
남이 마셔서	0(0.0)	0(0.0)	1(1.0)	1 (1.5)	2 (0.6)
기타	0(0.0)	0(0.0)	1(1.0)	0 (0.0)	1 (0.3)
합계	91 (100.0)	88 (100.0)	98 (100.0)	67 (100.0)	344 (100.0)

음료를 마시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8)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갈증 때문에 지적하였고, 1/3가량은 맛이 있어서를 지적하였다. 초등학교는 맛을 1위, 갈증 해소를 2위로 지적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교는 갈증 해소를 1위, 맛을 2위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과 달리 습관적으로 마신다 19.4%, 건강을 생각해서 마신다가 16.4%나 되는 반면 맛을 지적한 응답자는 3%에 불과하였다.

음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자는 맛(29.7-34.5%)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명주와 배은아(1996)는 식품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맛으로, 맛있는 식품의 과다섭취에 의하여 비만과 같은 성인병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음료의 맛이 음료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소비하는 양이 많지 않았고 비

만자도 없었으나, 비만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청량음료의 선호 경향과 비만을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초, 중, 고등학생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맛, 가격, 양의 순이었고, 교사는 맛, 영양, 가격의 순이었다. 교사이 영양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음료를 마실 때 표시사항의 확인정도(그림 4)가 가장 높은 것은 유통기한(87.1%-92.7%)으로 일반 식품 구입시와 같이 음료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유통기한 외에 조사 대상자의 50%이상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용량, 제조 연월일, 원료명, 첨가물이 있었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 용량과 제조 연월일이 있었다. 교사는 첨가물을 제외하고 용량, 제조회사,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원료명 모두 응답자의 50% 이상이 확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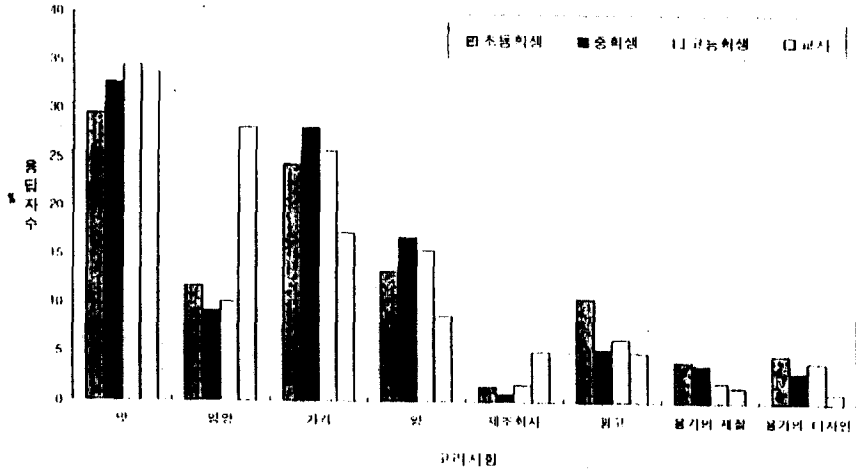


그림 3. 음료 선택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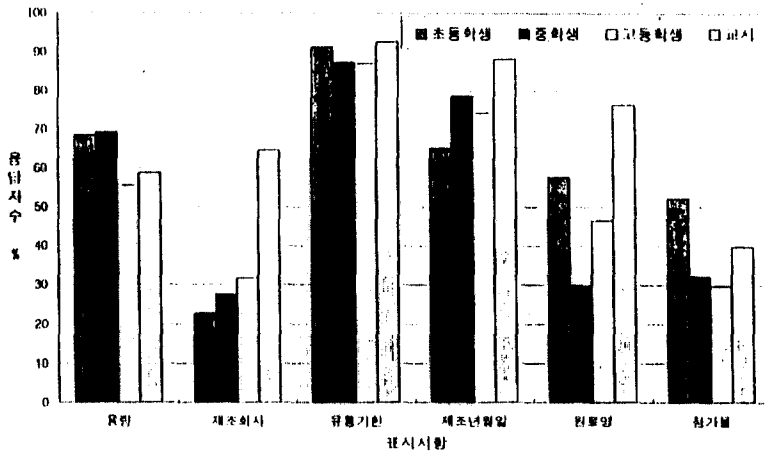


그림 4. 음료를 마실때 표시사항 확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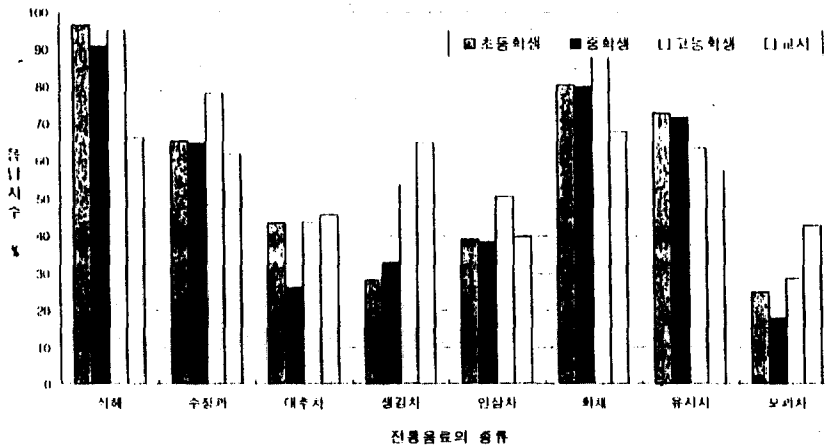


그림 5. 가정에서 마신 전통음료를 마셔본 경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회사의 확인도가 특히 초, 중, 고등학생 보다 높았다.

5) 전통음료에 대한 의견

각종의 전통음료에 대하여 마셔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그림 5) 식혜를 마셔보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96.7%가 식혜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며, 화채(80.4%), 유자차(72.8%), 수정과(65.2%)의 순으로 각 전통음료를 마셔본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도 초등학생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식혜(95.1%), 화채(90.1%), 수정과(78.2%), 유자차(63.4%), 생강차(53.5%), 인삼차(50.5%)의 순으로, 초,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식혜, 화채, 유자차, 수정과를 마셔본 학생이 많았는데, 이 이외의 전통음료를 마셔본 학생의 비율은 초, 중학생에 비해 높았다. 교사는 식혜(66.2%), 화채(67.7%), 생강차(64.7%), 수정과(61.8%), 유자차(57.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식혜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명절이나 제사 때에 자주 등장하는 대중화된 전통음료이기 때문이다. 반소희(1989)의 보고에 의하면 전통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는 이유로 먹어본 경험이 없다, 먹기 불편하다, 맛이 없다, 가격이 비싸다, 보급이 잘 안되었다, 홍보가 부족하다 등을 지적하였다. 전통음료에 대한 선호도나 마시는 양은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 등에 비해 그리 낮지 않았는데, 이는 식혜를 비롯한 일부 전통음료가 상품화되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구난숙(1995)이 대전지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음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식혜로 나타났으며, 식혜를 싫어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싫어하는 이유로 너무 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맛은 음료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 고유의 음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의 식생활의 일부로서 깊게 뿌리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대적 기호에 맞는 음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료 소비문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음료의 선호도와 마시는 양, 음료의 선택, 전통음료의 소비실태 등에 대해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초, 중, 고등학생은 교사에 비해 콜라, 사이다, 유산균음료, 스포츠음료, 전통음료 등 '청량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마시는 양도 많았으며, 커피, 차류와 같은 '다류'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고 마시는 양도 적었다. 음료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맛이었고, 음료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맛과 갈증해소이었으므로 음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호성으로 사료된다. 가정에서 만든 전통음료를 마셔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식혜'가 가장 높았으며, 화채, 수정과, 유자차, 생강차 등도 50% 이상이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변화되는 식생활 양상은 소비자 연령에 따른 음료의 소비 실태로서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다양한 음료가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청량음료의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런 음료와 결들여 먹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패스트 푸드의 소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의 전통음료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인 음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다양한 음료 개발과 아울러 전통음료에 어울리는 전통음식을 즉석식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무석, 김강화, 김경애, 신말식, 오승호, 임현숙, 전덕영, 홍윤호(1997) 식품과 영양, 효일문화사.
- 구난숙(1995)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0(4), 357.
- 권태완, 강세기(1993) 식품공업의 발달과 우리의 식생활, 한국식문화학회지, 8(4), 351.
- 김신애, 조재순(1995) 청소년 소비자의 스포츠음료에 대한 TV광고 수용태도와 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4(1), 51.

- 김영남(1992) 미국인 영양 권장량, pp 225, 수
학사.
- 김인수, 안홍석(1987) 서울 주민의 음료섭취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 영양학회지, 20(4),
281-288.
- 반소희(1989) 대학생의 음료습관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호, 김선영(1991) 한국 전통음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I. 전통음료의 종류와 제조
방법, 한국식문화학회지, 6(1), 43.
- 이효지(1994) 한국의 음청류 문화, 한국식문화
학회지, 9(4), 421.
- 장지인, 박상규, 이경주(1993) SAS/PC를 이
용한 통계자료 분석, 법문사.
- 조인성(1997) 음료 요즘 별일 없나, 식품정보
신문, 창간호
- 한명주, 배은아(1996) 소비자들의 식품선택기
준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식도, 한국
식문화학회지, 11(3), 299-304.